

B11

신장이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서의 단백뇨의 발생과 이식신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

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강경원, 김상목, 박찬현, 강종명, 박한철

신장이식 이후에 나타나는 단백뇨는 보고자에 따라 9%에서 41%까지 보고되고 있다.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아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에서는 단백뇨가 이식신의 기능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연구자들은 한양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이식 후 신장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환자들에서 이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나타나는 단백뇨의 빈도를 조사하고, 이 환자들의 장기적인 경과 중에 단백뇨가 이식신의 기능이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다. 대상환자는 총 138 명(남자 86 명, 여자 52 명)이었고 평균 연령은 36.4 세이었고 이들은 한양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1998년 1월부터 1995년 2월 사이에 받았으며 이식수술 후 최소한 2년 이상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한 자들이었으며 급성 거부반응은 전체 환자 중 36명에서 발생하였다.

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외래에서 처음 시행한 검사로부터 시작하여 이식 후 1년까지의 기간 중에 검사한 결과상, 이식 후 처음 3개월을 제외한 기간 중에 6개월이상 단백뇨가 지속되는 환자는 14명이 있었고(10.1%), 2개월이상 지속하는 일시적인 단백뇨는 12명에서 있었으며(8.7%), 112명의 환자는 이식 후 처음 3개월을 제외한 1년 동안 단백뇨가 발생하지 않았다. 이식 후 1년 2년 3년 4년의 시점에서 시행한 소변검사 에서 1+이상의 단백뇨는 이식 후 1년 138명 중 21명(15.2%), 2년 138명 중 27명(19.6%), 3년 130명 중 36명(27.1%), 4년 127명 중 39명(30.7%)에서 발생하였다.

이식 후 1년 내에 단백뇨가 있었던 환자군과 없었던 환자군 간에 이식신의 4년간 생존율을 Kaplan-Meier 법으로 비교한 결과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, 지속적인 단백뇨가 있었던 환자군과 단백뇨가 없었던 군간에도 4년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B12

소아의 미소변화형 신증후군 및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환자에서 혈청 및 요의 용해성 인터루킨-2 수용체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

하일수, 정해일, 최 용

목적: 연령, 단백뇨, 스테로이드 투여 등 가능한 교란인자들의 영향이 배제된 조건에서 소아의 신증후군, 또는 그 중 어떤 특성이 혈청이나 요의 용해성 인터루킨-2 수용체 (sIL-2R)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: 소아의 일차성 신증후군 중 미소변화형 신증후군 또는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으로 진단된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을 연령 (0-1세, 2-4세, 5세 이상), 단백뇨 및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(PU+Tx-, PU+Tx+, PU-Tx+, PU-Tx-)로 구분하였다. 이들과 대조군의 혈청, 요에서 ELISA법으로 sIL-2R를 정량하고, 요에서 Jaffe 법으로 크레아티닌치를 측정하였다. 각군의 혈청 sIL-2R치와 요 sIL-2R/크레아티닌 비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.

성적: 혈청 sIL-2R는 환자와 대조군에서 모두 연령이 어릴수록 높았고, 신증후군에서 대조군보다 높지 않았다. 환자군 중에서 재발한 경우에는 높고 스테로이드 투여 시에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. 요 sIL-2R/creatinine 비는 특히 단백뇨가 있을 때 연령이 어릴수록 높았고, 혈청치와 마찬가지로 재발과 스테로이드의 영향을 받았다. 혈청 sIL-2R치와 요 sIL-2R/creatinine 비는 신 병리조건, 스테로이드 반응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결론: 혈청 sIL-2R치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고, 신증후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, 재발상태의 환자는 완해상태의 환자보다 높았고,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때에 낮았다. 요 sIL-2R/creatinine 비는 특히 단백뇨가 있을 때 혈청 sIL-2R치를 잘 반영하였다.